

서울에 국내 첫 LCK 전용 경기장 생긴다

(LoL 챔피언스 코리아)

라이엇게임즈 LoL 전용 경기장 계획 발표
내년 9월 오픈, 종로 그랑서울 450석 규모
2019년부터 자체 방송도 준비…변화 예고



서울 종로에 2018년 리그 오브 레전드(LoL) 한국 리그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전용 경기장이 생긴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13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CK 전용 경기장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9월 오픈 예정인 'LoL PARK'(가칭)는 서울 종로 그랑서울에 만들 어진다. 전용경기장 'LCK 아레나'와 선수 대기공간, 팬들을 위한 문화공간 등을 포함해 약 5280㎡ 규모다. 임대기간은 2029년까지다. 이날 라이엇게임즈코리아가 정확한 투자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장소임대비용, 인테리어 및 장비, 관련 운영인력을 포함해 수백억원이 소

요될 것으로 보인다.

LCK 아레나는 반원 형태로 경기장을 450석의 관객들이 둘러싸는 구조다. 고화질 화면을 설치하고 각 객석에 푸드 트레이, 컵홀더, 충전 포트 등을 갖춰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라이엇게임즈는 경기장 위치가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아 관람객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이엇게임즈는 경기장 건립에 이어 2019년 시즌부터는 자체 방송 제작도 실시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미 공중파 스포츠 PD를 영입하고 자체적으로 방송 경험을 쌓는 등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관련 인력 영입과 방송 장비 도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이엇게임즈의 자체 방송 제작에 대해서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승현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는 "가장 큰 관심사인 중계진도 남은 기간 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준비할 것"이라며 기존 방송과



라이엇게임즈가 LCK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고, 방송 자체제작에도 나설 계획이어서 국내 e스포츠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9월 오픈하는 전용 경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승현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 사진제공 | 라이엇게임즈

의 관계에 대해 "입장차가 있지만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LoL e스포츠나 새로운 게임과

관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폭등 폭락 비트코인…거품일까, 자산일까

사상 최고 7879달러 이후 30% 떨어져
WSJ "닷컴·주목 버블 같은 투기" 경고
업계 "거품이다" "자산이다" 의견 분분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600% 가깝게 폭등하며 개당 8000달러까지 근접했던 가격이 최근 급락하자 다시 거품 논

란에 휩싸였다.

13일 미국 CNBC는 영국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코인데스크를 인용해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11일 6500달러(728만원)에서 5507달러(617만원)로 1000달러 가까이 급락하며 장중 하락 폭이 15%를 넘었다고 전했다. 8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7879달러(882만원)와 비교하면 낙폭은 30%에 달한다. 3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300달러(33만6000원)였고, 6년 전에는 2달러(2240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원인

에 대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디지털 화폐 개발자들의 의견 충돌을 꼽고 있다. 개발자의 투자에 힘입어 올해 급등했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확신은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비트코인이 1990년대 말 닷컴버블, 2000년대 미국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진 자산 거품 현상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미국 금융계에서도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크레딧스위스 최고경

영자(CEO)는 '거품 그 자체'라고 평가했고,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사기(fraud)'라고 했다. 이에 반해 골드먼삭스는 10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시사했고, 시카고상업거래소(CME)는 연내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를 예고하며 금융시장의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편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12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빙벙 서버가 과도한 트래픽으로 다운되자, 투자자들이 빙벙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보상을 요구 중이다. 더 급락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매각하려던 투자자들이 서버 다운으로 거래를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를 잡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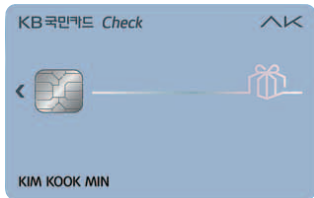
유통업계와 카드사, 상호 강점 제휴 활발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카드사의 협업이 이어지고 있다.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면서 양측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적 프로모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 상반기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1억2266만 장,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9749만장일 정도로 카드사의 데이터 규모는 방대하다. 유통사 입

장에서는 카드사가 거래승인내역을 분석해 제공하는 소비패턴만 파악해도 마케팅을 더욱 정교히 할 수 있다. 카드사도 유통사 제휴 특화 상품을 통해 유통 관심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윈-윈'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AK플라자는 KB국민카드와 손잡고 백화점 쇼핑, 제주항공 항공권, SPC가맹점 등 할인 혜택을 강화한 'AK KB국민카드'를 내놓았다. '다양한 생활의 즐거움' 슬로건에 맞게



사진제공 | AK플라자

제휴했다. GS25 팝카드 서비스 제휴 추진, GS25 신규 스마트 ATM기에서 우리 체크카드 발급, 우리카드 포인트를 GS리테일에서 결제 가능 등이 주요 내용이다. 허연수 GS리테일

쇼핑, 항공, 생활에 관련된 혜택을 강화했다.

편 의 점 GS25는 우리 카드와 제휴했다. GS25 팝카드 서비스 제휴 추진, GS25 신규 스마트 ATM기에서 우리 체크카드 발급, 우리카드 포인트를 GS리테일에서 결제 가능 등이 주요 내용이다.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는 “회원 1200만 명인 우리카드와 1만2000여개 GS25 점포가 협업 마케팅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신세계백화점과 홈플러스는 신한카드와 손잡고 각각 '신세계 신한카드' 3종과 '마이 홈플러스 신용·체크카드'를 출시했다. 현대백화점은 BC카드, 우리카드와 손잡고 '뉴 현대백화점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기존 멤버십 카드에 비해 유통사 포인트 적립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청태연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압촌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3일

코스피지수	2530.35	↓	-12.60
코스닥지수	741.38	↑	+20.59
日 닛케이 지수	2만2380.99	↓	-300.43
中 상하이 종합	3447.84	↑	+15.16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8	↑	+0.02
환율 (원 · 달러)	1121.50	↑	+1.9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6034.88	↓	-164.09

오늘의 얼굴

김용완 대한해운 대표, 자사주 매입



대한해운 김용완(사진) 대표가 최근 자사주 2000주를 추가 매입해 보유 주식이 7000주로 늘어났다. 문호식 감사(1000주), 조용택 부사장(2000주) 등 대한해운 임원들

도 총 4000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6000주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최근 대한해운 주가가 급락해 주가 회복을 위해 경영진이 나선 것이다. 대한해운은 8월22일 만 해도 1주당 3만8700원이었으나, 10일 2만6350원으로 31%나 하락했다. 대한해운은 주가 하락이 기업 가치와 상관없는 일부 공매도 세력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해운측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경영진이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이번 자사주 매입을 설명했다.

비즈 TALK TALK

●“3% 성장은 올해 반짝, 내년에는 다시 2%대”(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내년도 국내 경기를 예측하면서 2%대 중반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토록 지원”(최종구 금융위원장, 13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향'을 설명하면서)

●“기업은 이익보다 고용 창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찾게 됐다”(페니 로우 싱가포르 사회적기업협회 회장, 13일 '2017 세계기업가정신주간'한국행사 기조강연에서)

데이터 경제

지주회사의 상표권 수익 '땅짚고 헤엄치기'

13일 재벌닷컴이 자산 5000억원 이상 대기업 지주회사 13개사를 대상으로 매출 구성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익은 774억원으로 전체 매출 4조7356억원의 14.9%로 집계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제일홀딩스, 코오롱, 한솔홀딩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진칼 등 6개사는 계열사에서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었다. 사용료 절대액수로 보면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가 가장 많았다. LG는 전체 매출 6140억원 중 계열사 등으로 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 수익이 40.4%인 2478억원이었다. SK 그룹 지주회사인 SK가 전체 매출의 6.5%인 23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GS그룹의 GS는 매출의 18.2%인 681억원이었다.

대기업 지주회사 상표권 수익현황			
※ 자료:재벌닷컴			
	상표권 사용료 규모	총 매출 대비 비중	
SK	2037억원	6.5%	
LG	2478억원	40.4%	
GS	681억원	18.2%	
부영	16억원	0.9%	
동원엔터프라이즈	70억원	12.2%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479억원	53.0%	
LS	206억원	24.7%	
한진칼	308억원	51.2%	
제일홀딩스	22억원	58.7%	
코오롱	306억원	58.2%	
동아쏘시오홀딩스	326억원	58.9%	
한미사이언스	17억원	4.7%	
한솔홀딩스	130억원	53.8%	

편집 | 신하늬 기자

경제현장.jpg

아모레퍼시픽 '세 번째 용산시대'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신본사(사진) 준공으로 세 번째 용산시대를 시작한다. 지하7층, 지상 22층에 연면적 18만8902.07㎡ 규모로 7000여 명이 함께 근무할 수 있다.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를 맡았다. 철제된 아름다운 속 편안하고 풍부한 느낌을 주는 백자 달 향아리에서 영감을 얻어 건물을 하나의 커다란 달향아리로 표현했다. 건물 내에는 5층(아모레 가든)과 11층(드래곤 가든), 17층(퍼시픽 가든) 등에 건물 속 정원인 '루프 가든'을 마련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아모레퍼시픽

배틀그라운드, 국내 서비스 별개 서버 운영



스팀과 별개 서버인 '카카오 서버'로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게임즈는 10월 서비스 운영계획 발표 때는 통합 서버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운영방식을 변경한데 대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의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외 이용자와 분리해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프로그램 사용 제재 등 부정행위 대응에 용이해 변경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버 분리 추가 개발로 배틀그라운드는 우선 솔로 모드를 선보이고, 이후 듀오, 스쿼드 등의 모드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KEB하나은행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오픈



KEB하나은행이 '찾아가는 아파트 대출 금융상담 서비스'(사진)를 시작한다. 아파트 정보서비스 제공업체 '호갱노노'와 제휴해 고객에게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정보제공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은행직원이 방문해 금융상담을 하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다. '호갱노노'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당 매물의 실거래가와 공급량, 지역 및 환경적 요인, 전세가율 등 폭넓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대출 희망일자와 기간,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KEB하나은행 1Q영업지원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KEB하나은행 직원이 연락을 취해 아파트 대출과 관련한 체계적 금융상담을 진행한다.

정정욱 기자